

발전意志 主役으로 能動的 참여다짐



開校이라最多이원바출
東國中興을
大和합장을
다진하는
東國出身
국회의원들이
조선賓使之
를
임명했다.
（實真·임애·안인출
左로부터
文泰植·부희장
梁昶植·鄭在哲
崔載九·회장
鄭在鴻·晉春
金殷夏·趙炳鳳
李範俊·
尹順範·孟殷在
李憲基·의원）

◇崔載九회장이
 祝賀者席이
 일이 소개하고 있다. ▶ 左로부터 崔회장 (마이크
 앞) 金殷夏 朴翊柱 高炳鉉 赵炳鳳 李英駿 金道腹
 林德圭 金元範 李英一 李範俊 孟益在
 있다. ▶ 자

◇ 神賀寧아 출신 흥양 출신 외 담금의
나누며 연회를 즐기고 있는 동무들。 전남을

을 보낸 바 있다.

崔載九회장이 祝電

全國圖

11 대 國會 17 명 當選者 祝賀宴 성료 進出

| 선 할 명이 교수 1명중 | | 정당 | 지역구 | 전국구 | 총 |
|--|---|---------------------------|-----------------------|-------------|-----------------------|
| 기로써 기를 세우고 등국민 으로써 제11대 개교국 에 | 명이 동국가족 국회에 국회에 최다 진출률 총171 | 民正 民韓 국민 安民 無 | 4 4 2 1 1 | 4 1 5 | 8 4 3 1 1 |
| | | 計 | 12 | 5 | 171 |

地域區

표 3-8 범연수 학체 을국선 집

미래의 신부들에게.....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 4 1 5 T 33 35 31 33 88

Melophone

서울 중구 예관동126
C.P.O Box 7178호
TEL. 267-4764



◇월일이 악수를 나누며 長身의 운동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는 韓部회장과 柳부회장.

本회 회장단은 지난 4월 7일 정오 모교 운동선수 학술 대회에서 선수들에게 소를 발송하고 선수 영양 관리 賦金·誠品 전달식을 가졌다.

【스포츠에 대한 東國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韓 회장은 「선봉기수」라는 칭호를 받고 선수들에 대해 격려, 편성 선수들과 접촉을 하며 학술 소식을 전달식이 끝난 뒤 韓 회장은 이어 손수 쓴 편지로 회장을 보고 받는 한 편과 趙熙榮 학생처장이 석했다.

【이날 崔載九 회장과 체육 회사, 鄭在覺 회장은 회장을 찾았으며, 韓 회장은 이날 운동선수들과 함께 편지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운동선수 편지와 함께 편지를 전달한 회장은 「선봉기수」라는 칭호를 받고 선수들에게 격려했다.

【「선봉기수」라는 칭호를 선수들에게 주면 좋겠다고 격려, 수업료 전액에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이날 崔載九 회장을 대신해서尹天冰 사무국장을 지난 3월 12일 본회 사무실에서 수해

選手 青陽 관리비 50萬원

會長團 合宿所 찾아 과일 10BOX 도

7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孔子思想 연구에 몰두해 와

民法界 泰斗로 法文學 개척

정년퇴임 教授席

東女會 발전의 牽引車 역할

上場會社協議會 副會長 金鍾洙

鄭
仲
△鄭 교수

文理大교수

張
庚
鶴
△張 교수

法政大교수

李
龍
澤
△李 교수

經濟大교수

尹
乙
順
△尹 교수

師範大교수

만덕 產業(株) 副社長 高駒錫

大門綜合市場(株) 東



◇鄭 교수



◇張 교수



◇李 교수



◇尹 교수

1938년 모교의 전 신인 中央佛學哲學科에서 서양철학을 전공한 후 23년 모교에 재직해온 퇴임하게 된 鄭仲(문학대 철학과) 교수는 광주외과 대학예과 부교수, 전남대 백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鄭교수는 현재 「韓國孔子學會」 부회장을 맡고 있고 76년에는 교육계에 고 57년에는 美國 Indiana 대학에서 수학하기

63년부터 모교에 재직 한 이래 법정대학원에 현 신동래와 張慶鶴(법정 대·법학과) 교수는 41년 일본 京都大學을 졸업했

아니는 張慶鶴 교수는 72년에 「大韓大學」 법학부를 졸업했다.

한국 고등고시·사법시험위 교육계에 그간 친교로 국민부총통으로 활약해온 鄭仲 교수는 3월 9일 대통령 표창을 받기

로 일어난 회계과를 대

는 80여명의 모교출신 공

인회계사를 배출시킨 주

기도 했다.

72년에는 「대한

민족「大韓大學」을

는 79년에는 「대한

민족「大韓大學」을

는 80여명의 모교출신 공

인회계사를 배출시킨 주

기도 했다.

72년에는 「대한

민족「大韓大學」을

는 80여명의 모교출신 공

인회계사를 배출시킨 주

기도 했다.

「조세의 블」에 大統領표창
국민保健 向上에도 기여

鎬·장·
宗·李
<中華副製藥會長>

本회副會長 李宗鎬(58法學·中外製藥社
長) 동북이 3월 12일 제15회 조세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남세자로 대통령표창을 받
았다. 李宗鎬은 의약품 전문제이커인 中外製
藥 품에서 국민건강 환경에 이바지
해오고 있으며, 본회부회장을 맡고 있
다.

本회副會長 李炳基(58法學·中外製藥社
長) 동북이 3월 12일 제15회 조세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남세자로 대통령표창을 받
았다. 李炳基은 충청부시장, 강원도
부교육감, 鐵原郡副知事로 활약하고 있다.
李炳基은 충청부시장, 강원도
부교육감, 鐵原郡副知事로 활약하고 있다.
李炳基은 충청부시장, 강원도
부교육감, 鐵原郡副知事로 활약하고 있다.
李炳基은 충청부시장, 강원도
부교육감, 鐵原郡副知事로 활약하고 있다.

企業一線서 學界로 진출해
보험學界 권위로 經博취득
會 聚

駐
도미니카大使로 영전

李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大副會長
<成均副會長>

朴
福
衡
동문

崔
元
동문

榮進轉輔

結婚

東洋石油(株)
常務理事 李準雨

朴恩

각급大學院ニュース

各대학원修了者도 93명

趙榮煥 農博은 最年少 졸득

博士7·碩士1백22명 배출

1980학년도 백22명을 배출했다.

지난 2월 26일 모교

에서는 文博 3, 理博 1, 農博 2, 工博 1명이

대학원에서 총 93명도 수료

증명하고 동국의 이름으로

사회에 배출되었다.

이날 석사학위는 대학원

에서 金武生 등 86명, 협정

또한 이날 행정·경영대

대학원 예술생 93명도 수료

증명하고 동국의 이름으로

사회에 배출되었다.

이날 석사학위는 대학원

에서 金教洙 등 15명이

경영대학원에서 金教洙 등 15

명이 각각 받았다.

또한 이날 행정·경영대

대학원 예술생 93명도 수료

증명하고 동국의 이름으로

사회에 배출되었다.

모교 1980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새博士 7명과

3개 대학원 석사 1

학위수여식에서 새Doctor 7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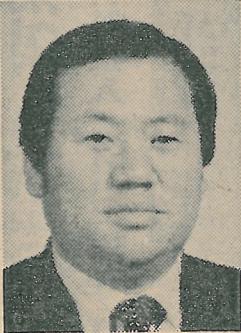
3개 대학원 석사 1

학위수여식에서 새Doctor

내 남은 산지에는 내가 어느 여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짹은 자 진한 정이 불어 있다. 여인은 제법 색안경을 끼고 풀을 잘 있는가 하면, 나는 술이 거나 해서 놀까지 풀린 체 손에는 웬 들꽃까지 한 송이 꿔어든 교학서니가 불수록 가관이다.

그 여인이 지금의 내 아내가 아닌 것은 물론이다. 혀지만 내 아내도 그 사진만은 가령, 페어 펑 가치거나 쪽쪽 찢어 버릴려고 하는 기색이 없다. 젊어서는 달려에 든 여배우 사진만 예쁘다고 해도 그 눈을 솔곳으로 쳐를 말씀 질투가 실한 아내지만 그 사진에 관한 한 큰 이해없이 내 얘기를 믿어주기 때문이 아내가 한다.

그 사진은 내가 母校 국립극장에서 교외로 솔uong을 나갔다가 한 여학생과 잡지나마 눈이 맞아 (?) 같은 사진이다. 우리과에는 서너명의 여학생이 있었지만 대개 말도 볼이기 어려운 새침해기 들어있고 이 여학생만이 그런대로 속이 좀 트인 편이 아니나 싶다.



◇作家プロフィル

▲1938년 忠南扶餘生
▲母校國文系(61)
▲충청일보 신춘문예(詩)
당선(65)
▲「現代文學」에 소설주
원로(76년)
▲현재 東大新聞社편집국
장。

어림없다. 둘순씨가 먼저 대문밖에
나온 친구가 한마디 해봐도
기회가 없는 시간에 석조관 뒤
우리도 신발을 찾으신고 투덜거
리며 나올 밖에!
『설파가시고에, 달에 또 둘순오
서 강의를 밟았고 시험을 치렀다.
그때 우리를 가르쳐주신 국문과
온사로는 서정주, 이동립, 이병주,
조연현, 김기동, 양복규, 최학선, 장

다. 키도 작고 얼굴은 까무잡한
눈에도 좋은 성감이 들어
여자다. 게다가 서울말은 한토
마 배워들려고도 않고 경상도 사
로로 치고 친구가 많았다.

한 방을 만난 출간들이지 천하에
물을 흘한 우리가 찾아간다는 것은 호
기심도 흥기심이지만 이상하게 기
분 좋은 것이다.

그러나 둘순씨는 그런 우리를 맞

아 오히려 누님 같았다. 신나게 같

것이다.

둘순씨

보기 좋게 주며 뺨을 한

대 물려들이고 걸을아 날 살려라

도망쳐 나왔다는 소문은 유언비어

처럼 우리 과에 스며든 적도 있

었다.

그런 둘순씨도 가끔은 점을 베

풀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정은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쓰였다.

우수동 졸업가에서 전세방을 얻

기회를 하면서도 우리과의 몇

몇 남학생을 간혹 초대한 것이 그

것이다.

둘순씨

보기 좋게 주며 뺨을 한

대 물려들이고 걸을아 날 살려라

도망쳐 나왔다는 소문은 유언비어

처럼 우리 과에 스며든 적도 있

었다.

둘순씨는 그만 가락하니 그려내,

밥 9시 넘으면 악침에서 옥한다

아닙니까?

『해해 둘순씨

목하기는 편 우리

열시지만 냉니다

만!

『벌어먹을 단체로 좀 자구가면

이내

아되나?

네살 좋은 친구가

먼저 대문밖에

나온

친구가

한마디 해봐도

기회가

없는

시간에

석조관 뒤

석조관

에

들었

다.

그리고

나온

친구가

한마디 해봐도

기회가

없는

시간에

석조관 뒤

석조관

에

들었

다.

그리고

나온

친구가

한마디 해봐도

기회가

없는

시간에

석조관 뒤

석조관

에

들었

다.

그리고

나온

친구가

한마디 해봐도

기회가

없는

시간에

석조관 뒤

석조관

에

들었

다.

그리고

나온

친구가

한마디 해봐도

기회가

없는

시간에

석조관 뒤

석조관

에

들었

다.

그리고

나온

친구가

한마디 해봐도

기회가

없는

시간에

석조관 뒤

석조관

에

들었

다.

그리고

나온

친구가

한마디 해봐도

기회가

없는

시간에

석조관 뒤

석조관

에

들었

다.

그리고

나온

친구가

한마디 해봐도

기회가

없는

시간에

석조관 뒤

석조관

에

들었

다.

그리고

나온

친구가

한마디 해봐도

기회가

없는

시간에

석조관 뒤

석조관

에

들었

다.

그리고

나온

친구가

한마디 해봐도

기회가

없는

시간에

석조관 뒤

석조관

에

들었

다.

그리고

나온

친구가 한마디 해봐도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 가락하니 그려내,

밥 9시 넘으면 악침에서 옥한다

아닙니까?

『해해 둘순씨

목하기는 편 우리

열시지만 냉니다

만!

『벌어먹을 단체로 좀 자구가면

이내

친구가

한마디 해봐도

기회가

없는

시간에

석조관 뒤

석조관

에

들었

다.

